

[프로야구]염경엽 감독 "박주현 4회 끌고간 것만도 성공적"

등록 2016.04.10 13:41:33 | 수정 2016.12.28 16:53:34



【서울=뉴스시스】최현 기자 = "솔직히 박살날 줄 알았는데 4회까지 잘 끌고 간 것만 해도 성공한 것이다. 잘했다고 생각한다."

전날 선발에 나선 우완 기대주 박주현(20)에 대한 염경엽 넥센 히어로즈 감독의 평가다.

염 감독은 10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와의 3연전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"박주현을 좋게 봤다"며 이같이 밝혔다.

박주현은 전날 경기에서 4회까지 무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5회말에 홈런 2방 등을 얻어맞으며 5점을 내준 뒤 마운드에서 내려왔다. 5이닝 8피안타(2홈런) 5탈삼진 무사사구 5실점.

박주현은 최고 구속 144km에 직구와 커브, 슬라이더, 체인지업을 섞어 던졌다. 투구 수는 86개였다.

팀이 8-5로 앞선 6회말 이보근과 교체됐지만 불펜 투수들이 동점 점수를 허용하면서 데뷔 첫 승은 다음으로 미뤘다. 넥센과 두산은 연장 12회 접전 끝에 올 시즌 첫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.

염 감독은 "(박주현이) 선발 경험이 없다보니 어제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"며 "주현이가 어제 공을 86개 던졌다. 투구수가 70개 이상 넘어가자 힘이 빠지면서 제구력이 급격하게 떨어졌다"고 지적했다.

이어 "어제 경기를 보면 1회와 5회 공이 확연히 달랐다. 힘이 빠졌을 때 좀 더 신중하게 던져야 한다. 스스로도 힘이 빠졌을 때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"이라며 "변화구를 던지는 등 패턴을 바꾸면서 경기 운용력을 올려야 한다"고 주문했다.

염 감독은 향후 박주현이 등판했을 때 투구수가 70개를 넘어갈 시점에 한 번 더 점검하고, 투구수 역시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.

그는 "지금 당장 주현이에 대해 기대를 하는 것보다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 크다"며 "중요한 것은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가 아

닌 그런 것들을 느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"고 말했다.

또 "주현이에게도 결과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. 마운드 위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공을 100개 이상 던지는 투수가 될 수 있는 것이다. 바라는 건 다음 시즌"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.

forgetmenot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